
 <b>인천광역시</b>	<b>보 도 자 료</b>		
담당 보건환경연구원 부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배포일자	2022년 7월 27일(수) 총 3매	
	담 당 자	•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장 박진수 ☎858-9702 • 담당자 김형준 ☎858-9706	
<b>사진(이미지)</b>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b>참고자료</b>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b>보 도 시 점</b>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시, 천연기념물 검은머리물떼새 자연으로 돌려보내

### - 올 해 4~5월 구조된 검은머리물떼새의 부화부터 자연으로 돌아가기까지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올 해 4~5월 연수구 송도에서 인천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의해 구조된 알에서 태어난 검은머리물떼새 5마리를 자연의 품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검은머리물떼새는 천연기념물 제326호이자 환경부에서 국내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는 조류로서 서해안 갯벌이나 강 하구에 서식하는 새이다.

인천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는 지난 4월 29일 연수구 송도동 공사 현장에서 발견된 검은머리물떼새의 알 2개를 시작으로 해당 지역에서 총 7개의 알을 구조했으며 검은머리물떼새 7마리를 모두 부화시키는데 성공했다.

야생 조류 유조는 짧은 간격의 먹이공급이 필요해 일정 크기 이상으로

자라기 전까지 먹이 공급을 위해 모든 센터 직원이 함께 노력했으며 첫 일주일을 버티지 못한 2마리를 제외한 5마리가 아성조 수준으로 성장한 후 야외 계류장으로 옮겨 본격적으로 비행 훈련과 먹이 훈련을 실시했다.

그 결과 부화한지 약 3개월 만에 비행 능력과 먹이 사냥 능력을 학습하고 자연으로 돌아가도 좋을 만큼의 활력을 되찾았다.

자연복귀는 통상 동물이 원래 살던 장소로 돌려보내 주는 것이 일반적이나 최초 발견 장소인 공사현장은 자연 복귀 장소로는 부적합해 다수의 검은머리물떼새들이 활동하고 있고 먹이 환경이 풍부한 경기도 화성시 서산면에 있는 화성호를 자연복귀 장소로 결정하고 지난 19일 12시경 자연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박진수 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장은 “홀로 남겨진 야생동물 새끼나 알을 발견한 경우, 설부른 구조 대신 일단 멀리서 두 시간 정도 어미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지 관찰하고 어미가 없음을 확인 후 구조해야 한다”라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등 관계 기관에 문의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붙임> 관련사진



공사현장에서 발견된 검은머리물떼새 알



부화기에서 태어난 검은머리물떼새 유조



무럭무럭 자라나는 검은머리물떼새



자연으로 돌아가는 검은머리물떼새